



러지게 되었던 1990년에 선생은 뒤늦게 테네시 대학에서 미술학 석사(M.F.A)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배움의 길에는 나이가 없다”며 강경하게 권고하신 김옥길(전 이대총장) 은사님의 힘이 컸다고 한다.

비록 다른 사람들보다는 늦게 시작한 도예의 길이지만 김은숙 선생은 누구보다도 왕성한 작품활동을 벌여왔다. 20회에 가까운 개인전과, 1994 국제 콘 박스 전람회(International Cone Box Show)를 비롯한 10차례의 국제 공모전, 그리고 20회 이상의 그룹전 등으로 상도 여러 번 받고 미술관련 잡지에도 자주 소개가 되었다. 하지만 김은숙 선생은 작품활동에만 몰두하는 도예가만은 아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중국 상해 미술관의 보진첸(Bo-Jin Chen)에게서 전통 동양화 기법을 사사 받은 화가이며, 동양미술에 대한 선생의 해박한 지식 때문에 어떤 이들은 그를 미술사가(Art Historian)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운영하는 화랑을 통해 이곳의 미술활동을 독려하는 지역문화 활동가이다.

이곳 오크리지에서 김은숙 선생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다. 오크리지는 2차대전 당시 원자폭탄을 만든 곳으로 유명한 오크리지 국립연구소가 있는 과학도시이다. 많은 주민들이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연과학자거나 공학자로서 교육수준은 높지만 그에 걸맞은 문화 공간이 부



1, 2, 3. 지난 2월 The Upstairs Gallery에서의 전시 작품들.  
4. 뒷 마당 정원을 장식한 화무무비 12달 도판

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김은숙 선생이 책임자로 운영하고 있는 업스테어스 화랑은 동 테네시 예술가 조합(Co-op)의 공식 화랑으로서, 메마른 과학도시 오크리지를 촉촉히 적셔주는 오아시스 같은 곳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 소문이 알려지면서 테네시 대학이 있는 대학도시인 낙스빌에서도 그 분의 화랑을 유치하고 싶어했다. 그래서 이번 4월부터 결국 낙스빌 시 중심지에도 화랑이 하나 더 문을 열게 되었다.

김은숙 선생의 왕성한 활동 중에서도 특히 할만한 일은 점점 사라져가는 한국의 옹기 예술을 세계에 널리 알린 일이다. 1986년 한국을 방문했다가 조정현 교수의 소개로 경기도 이천의 옹기도공 마을을 처음 알게 된 김은숙 선생은 우리의 전통 옹기에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 그래서 옹기에 대해 포토 저널리즘 작업도 하고, 이천 옹기에 대한 강의도 미국과 일본에

서 여러번 하고, 그에 대한 논문도 동양학 관련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그 뿐 아니라 유명 옹기 도공인 배오섭 씨를 초청하여 미국 오크리지에서 워크숍을 여는 등, 특히 한국의 도예문화를 미국에 전하는데 남다른 열정을 보여왔다. 그래서 호주에서 발행하는 유명한 도예 전문지(도예: 예술과 지각(Ceramics: Art and Perception))은 이런 김은숙 선생을 두고 “두 문화 사이를 잇는 가교(Bridge between Two Cultures)”라고 표현하고 있다.

도예가로서 뿐만 아니라, 동양화가로서, 미술인들에게 전시공간을 제공하는 화랑의 책임자로서, 동양 미술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자랑하는 미술사가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의 도예문화를 미국에 전하는 미술 활동가로서 김은숙 선생은 오늘도 젊은 사람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열심히 뛰고 있다.